

# 전남 영농폐비닐 1만5천t 잔존 '비상'

## 연평균 1151만개 폐농약 용기 발생 276만개 미수거 도, 영농폐기물·해양쓰레기 등 제로화 본격 나서

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원으로 낙인 찍힌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이 수거를 거듭해도 상당수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연평균 4만70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3만1667t(76%)만 수거되고 1만5333t이 미수거량으로 남아있다. 같은 기간 폐농약 용기의 연평균

발생량은 1151만9000개로 875만5개(76%)를 수거하고 276만개는 수거하지 못했다.

폐농약 용기 중 폐농약 빈병은 85%를 수거하고 있으나 폐농약병지는 수거율이 절반(51.6%)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방치된 폐농기계의 기름 유출로 인해 미관 훼손은 물론 수질 및 토양 오염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전남도내 폐농기계는 전체 25만6739대의 1.8%인 4000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영농폐기물을 분리, 보관할 공공집하장 등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남지역 농촌마을 6796곳 중 공동집하장은 1366곳(20%) 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오지, 섬지역은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로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도 횡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해양쓰레기 이어, 영농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본격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영농폐기물 제로화 추진과 함께 방치 폐농기계에 보상 지원, 농촌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폐비닐 수거보상금 현실화로 수거를 촉진하고 폐농약용기 수거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결국 국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뱃속에 폐비닐이 가득한 홍어, 페플라스티를 먹은 바다거북 등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김정환 기자

## 멕시코서 휘발유 트럭운송으로 공급 지연

멕시코가 연료 절도를 막기 위해 휘발유 배포 방식을 바꾸면서 촉발된 연료 부족으로 주유소 앞마다 긴 줄이 생기는 등 멕시코에서 휘발유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좀더 안전하게 연료를 수송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 운송 방식 변경으로 파나화토와 이달고, 잘리스코, 미초아칸, 멕시코, 케레타로주 등의 주유소로 연료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페멕스는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곧 안정될 것이라며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멕시코 국민들은 휘발유를 구하느라 분주하며 소셜미디어에는 연료가 떨어졌다고 써붙인 주유소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휘발유 부족 사태를 지난 1970년대 빵과 우유와 같은 생필품이 부족했던 때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휘발유 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새 멕시코 정부의 정책들이 멕시코를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페멕스 내의 공모로 10년 전 연간 50만 달러 정도에 그쳤던 연료 절도 피해 규모가 지난해에는 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멕시코가 하루 1000트럭분에 달하던 연료 절도량을 하루 36트럭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지만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 브라질 북동부서 연쇄 폭동...군 300명 투입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연쇄 폭동 및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정부는 폭동과 방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북동부 세이라주에 300명의 군 병력을 투입했다. 세이라 주는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59명이 폭력사건으로 숨지는 등 심각한 치안 문제를 노출했다.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신 기간 고질적인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발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6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관이 피살된 데 대해 "신이 악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조직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순찰 도중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권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세르지우 모루 브라질 법무·공공안전부 장관은 은행과 상점, 버스를 표적으로 한 공격에 대응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모루 장관은 6일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에서 조직 범죄에 맞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캘리포니아 산불지역, 산사태로 고속도로 폐쇄

지난 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우로 진흙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LA북부 고속도로가 7일까지 폐쇄되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5일 발생한 진흙산사태로 고속도로 안에 갇히기도 했다.

진흙 산사태는 주로 말리부 주변 산악지대로, 지난 해 산불 피해로 수목이 모두 불탄 벌거숭이 산지에서 일어났다. 그 때문에 쓸려나온 엄청난 진흙과 산사태 쓰레기로 태평양연안 고속도로가 폐쇄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시 북서쪽의 아름다운 산악지대에서는 작업반이 투입되어 산사태에 갇힌 차량들을 견인하고 차선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7일까지 폐쇄된다. 아직 보고된 사상자는 없다.

이 곳의 일부 지역에서는 5일의 진흙 산사태로 길이 1.2미터나 되는 진흙탕에 차량들이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28세의 미국 유명 래퍼 소울자보이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기도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진흙 산사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내 차도 진흙속에 휩쓸려 히미트면 태평양으로 쓸려 들어갈 뻔 했다"고 썼다.

산티모나 산 서부의 자동 측우기는 시간 당 2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폭우수준이라고 국립 기상청은 발표했다.

태평양 연안과 벨리 지역의 강우량이 3.8cm에 이르는 반면 산악지대에는 폭설이 쏟아졌다.

## 광주 유통 농산물 잔류 농약 기준 초과 23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통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이 23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을 적발해 1t 가량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성검사는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798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85건 등 총 288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208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부적합률은 0.8%로 집계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시금치, 부추, 열무, 잇갈이배추, 치커리, 당귀잎, 아욱 등이 각 2건이었으며 총각무, 씬추, 상추, 깻잎, 유채, 썩갓, 취나물, 숙은무, 쪽파 등은 1건이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살균제와 살충제로, 클로르피리포스, 카두사포스, 프로사이피돈이 각 3건, 다이아지논, 디니코나졸, 인독사키브 각 2건 등 모두 13종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조치했으며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기관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은홍 기자



“사자소학 배워요” 7일 오전 부산 동래구 총렬사 인력서원 교육회관에서 열린 초등학생 전통문화 체험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사자소학을 배우고 있다.

## “하룻밤 새 터미널 폐쇄” 영광 법성포 주민들 불편 가중

인구 감소에 따른 승객 부족으로 46년간 이용해 온 터미널이 하룻밤 새 폐쇄 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영광 법성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법성포 터미널이 폐쇄됐다.

터미널 폐쇄는 운영업체인 A사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비롯됐다.

A사는 수익 감소분을 영광군이 보존해 주면 터미널 폐쇄를 유보할 수 있다고 요청했지만 영광군은 민간사업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광군이 터미널을 직접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민간시설을 지자체가 위탁받아 운영한 선례가 없고, 관련규정에 위배 된다는 이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광군은 이후 A사와 협의를 거

쳐 터미널을 폐쇄하는 대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A사 대표 소유의 상가 건물에 간이 정류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협의에 따라 현재 A사가 폐쇄된 터미널 인근 상가 앞에 법성 버스 간이 정류장을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공용 화장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 1층을 분할해 만든 대합실은 공간이 협소해 10여명 이상은 이용할 수 없어 겨울 추위 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72년 준공된 법성포 터미널은 2300㎡(695.7평) 부지에 대합실과 매표소,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사가 1996년에 인수해 그동안 운영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자가용 보급 증가로 매년 승객이 감소하면

서 경영난을 호소해 왔다.

영광읍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승객은 50여명에도 채 못 미치는 날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광군에 따르면 A사는 버스 승차권 매표 수수료를 수익 기반으로 터미널을 운영해 왔지만 수익은 월 100여 만원 수준인 반면 매월 인건비와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등 150만~200여 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돼 왔다.

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한 폐쇄된 터미널을 다시 정상화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승객들이 호소하는 공용화장실 부재에 따른 불편 문제는 빠른 내달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 간이 정류장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 설문, 자필치료, 영민 민력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혼동하지 마세요.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